

## ■ 2025년도 지역예술도약지원 시각예술 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지역예술도약지원(시각예술)
- 회의일시 : 2025년 5월 22일(목) 13:00~18:00  
2025년 5월 23일(금) 09:30~15: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2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기혜경, 김영동, 박수진, 변종필, 유원준

지역예술도약지원 사업은 지역 작가의 예술적 성취와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한 취지로 예술위원회가 지역 재단과 올해 처음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재단 사업 수행 이력이 있는 작가들 중 별도 심의를 통해 지역에서 3배수(3명) 작가 추천을 하면, 예술위원회가 인터뷰 심의를 통해 권역별로 최종 1배수(1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전시, 출판, 아카이브, 신작 창·제작 등을 통해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수도권을 제외한 총 14개 광역 재단에서 40명의 지역 예술가를 추천하여 총 17명의 작가가 최종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선정 이후에 예술위원회에서 큐레이터 및 연구진, 공간 등을 기획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프로젝트의 구체성보다는 해당 작가가 희망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경우 다음 단계로의 도약이 기대되는 작가인가를 검증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심사 기준 또한 사전에 공고된 바와 같이 '작가 역량' (70%), '기대 효과' (30%)로 구성되었으며, 예술적 자원과 역량을 가진 작가인지를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신청서가 지원사업의 최대 예산(1억 원)을 고려하여 신청하였는데, 심의 위원회는 인터뷰를 통해 작가의 도약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부분을 추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후 오랜 논의와 조정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액을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균형 분배도 고려하였는데 모든 권역별로 1명의 작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천된 작가들의 역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도약의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권역의 경우 최대 2인까지 지원 선정하였다. 다만 권역별 차점자에 대해서는 신청액 대비 선정 지원액에 차등을 두었으며, 신청한 모든 항목을 지원하는 대신 아카이브 등 일부만 지원하는 조건부 선정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본 사업은 '24년도 재단 사업 선정 이력이라는 필터를 통하다 보니, 일부 지역은 우수 작가가 고르게 추천되지 못하는 경향도 보였다. 지역 작가들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우수 작가들이 추천에 누락되지 않도록 재단의 사업 설계를 촘촘히 함으로써 예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중견 작가의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중견작가 자격기준에 대하여 추천 재단들 사이에 공통된 합의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선정된 지원자는 향후 작가 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별도로 구성된 제작지원단의 도움으로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프로젝트 구현 지원이 연계될 예정이다. 예술위와 각 재단은 선정된 작가에게 필요한 지원을 꼼꼼하게 설계하여 뒷받침함으로써 다소나마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고, 많은 작가들이 국내외로 적극 도약하길 기원한다.

2025년 지역예술도약지원(시각예술) 심의위원회 일동